



## 제1절 특허청 비전과 추진전략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공업사무관 흥재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기술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그림 I-2-1 '23년 업무 추진 방향

| 비전                   |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  |  |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경쟁력 : 국민체감의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구현</li> <li>▷ 기술경쟁력 : 디지털 시대의 미래 첨단기술 선도</li> <li>▷ 기업경쟁력 :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li> </ul> |  |
| 3대 추진전략              |   | 12개 핵심과제   |
|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체계 개편</li> <li>2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li> <li>3 정확하고 신속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li> <li>4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 제고</li> </ol>               |
|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 국가 R&amp;D 혁신체계 구축</li> <li>2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표준 특허 전략지원 확대</li> <li>3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li> <li>4 창의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li> </ol> |
| 혁신기업의 IP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 중심의 지식 재산 거래·사업화 촉진</li> <li>2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지원</li> <li>3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안전망 마련</li> <li>4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 조성</li> </ol>                  |

##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공업사무관 홍재경

### 1.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의 패권 장악을 위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통한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

먼저 특허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분야 고품질 핵심특허 확보 및 반도체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 채용을 추진하여, 23년 30명의 채용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도 신설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였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 및 친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상표 및 디자인분야에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썼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여 상표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행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연장하고, 우선권 주장 절차

규정을 개선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심판분야에서는 반도체·모빌리티 분야 전담 심판부를 운영하고,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심판부를 정규화 하였으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고객지향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 2. 지식재산으로 앞서가는 기술경쟁력

5억건 이상의 전세계 지식재산 데이터는 각 국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기술혁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들인 R&D의 성과물로 산업 핵심 정보의 집약체이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백기술 분야 발굴을 통해 시장 선점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주요 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산업·기술 수준을 비교·진단하고 유망 R&D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산·학·연에 제공하여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된 주요 산업에 대한 특허 동향과 유망 R&D 과제 등 특허 빅데이터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에 정보를 개방하였다.

특허 빅데이터와 더불어 기술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제품·서비스 간

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과 표준 특허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역량 강화를 위해 '23년 6G·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혁신 기술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R&D 기획단계에서의 신규 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 3.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되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대한 정책적 이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의 기술 및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먼저 수사협력 등 국가정보원과 적극적인 기술유출 방지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방첩전략회의에서 특허청이 7번째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몰수 및 범인 대상 벌금형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기술상표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 및 실용신안권 침해행위까지 확대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또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신설하여 복합·유사 상표 등 고난이도 상표권 침해 판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기술보호 최적화 전략 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특허·영업비

밀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 대응 지원도 고도화 하였다.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강화 방안' 및 '해외 NPE 특허 분쟁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이 특허 공격·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하고 광역형 해외IP센터로 개편하여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초동대응도 강화하였다.

### 4.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의 산물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 및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되며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지식재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거래되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IP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본격적으로 가치평가 품질체계를 구축·운영 하였다. 이와 함께 공적 품질관리체계를 총괄하는 조직인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출범하

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금융 포럼을 개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였다. 또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특허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IP가치 기반의 기업투자를 하고, IP자체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IP직접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민간 IP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등 IP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였다. 나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연구자의 기술개발 및 발명 의욕을 고취하였다.

## 5.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꾹히는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미래의 자본’이라고 불린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시장전략, 핵심인력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중복 연구개발 투자 방지, 산업·경제·안보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하에서는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에 한정하여 활용이 가능하기에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가 필수인 경제·기술안보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제한적 활용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정법에는 미등록 출원정보도 포함 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제도적 인프라와 더불어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고, 혁신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학 내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이공계 학생들을 전공지식에 더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학과 맞춤형 기술·IP 융합강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교수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발명교육 검증 역할을 할 발명체험교육관을 운영하였고,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의 발명 및 IP 교육을 확대하였다.

## 제3절 지식재산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1. 지식재산 정책 연구 강화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행정주사      김영준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업경영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보급하여 국가·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의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국가의 중장기적 지식재산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특허청 내부·학계·기업 등의 수요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정책연구 주제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전문가)과 연구계약을 체결해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표 I-2-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특허청 훈령 제909호) 운영

'23년도에 수행했던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결과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다.

표 I-2-2 '23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 No | 과 제 명                                      |
|----|--|
| 1  |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파급효과 연구                    |
| 2  | 기술유출, 침해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구축방안              |
| 3  | 상표권 침해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
| 4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IP직접투자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연구 |
| 5  | 행정환경,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조직 개편 방안           |
| 6  |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7  | 국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
| 8  | 유럽의 표준특허 라이센싱 생태계 변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
| 9  | 직무발명 분쟁시 종재제도 도입 방안 연구                     |
| 10 | 변리업 실태조사                                   |
| 11 | 국가전략기술 IP-R&D 의무화 이행 및 평가 방안연구             |
| 12 | 정부 R&D 특허성과 질적 분석지표 개발연구                   |
| 13 | 아이디어 ·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 14 | 해외진출기업 지식재산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
| 15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해외출원시 출원공개연구           |
| 16 |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 이의신청 제도 개선 방향             |
| 17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에 관한 산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
| 18 | 반도체 관련 출원의 주요국 심사사례 비교를 통한 주요국 특허성 판단기준 도출 |
| 19 | PCT 국제조사료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 20 | 특허미생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가 지식재산권 정책수립에 직접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19년~'23년 '지식재산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수행된 과제의 정책 활용률은 100%로서 '17년(95.5%),

'18년(97.8%)에 이어 활용률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중복연구방지를 위한 중복성 사전검토, 과제 중간점검 내실화 등 연구관리를 강화하여, 연구과제 보고서의 품질을 개선하고 활용률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2. 지식재산 정책 연구 기반 구축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정책과 | 행정사무관 | 김한식 |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국가전략자산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 기반 조

성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권 전문연구 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통해 지식재산 연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및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지식재산 동향 수집·보급

'23년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캐나다 등 다양한 지역·경제수준의 국가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의 지식재산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내용을 제공하였다. 또한, 국가 핵심 정책현안 관련 특별이슈를 선정(경제안보, 디지털·그린뉴딜, 우크라이나 사태 등)하고 주제별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가 정책 개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공하였다.

지식재산 동향 정보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22년부터 기존 발간물을 'IP News', 'IP Focus', 'IP Stats', 'IP Report' 등 4종으로 개편하여 보급하고 있다.

수집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 가운데 정책적 시사점이 높으면서도 이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정리하여 'IP News'로 매주 제공하였다. 'IP FOCUS'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에 관한 정보를 심도 깊게 분석한 것으로, '23년에는 생성형 AI, 우주기술, 유전자원 출처공개, SDG 등의 현안

분석 및 정책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관점의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제공(29건)하였다.

또한, 세계 지식재산 주요 보고서 및 정책 자료의 원문을 번역하여 자료 접근성을 높인 'IP Report'(12회)를 웹으로 수시 제공하였다.

'IP Stats'는 분기별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되었으며, IP 관련 산업 지표로 통계 데이터 기반 산업 동향과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23년에는 양자 기술,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기후변화 완화 기술 등 각 기술 분야의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일반인 등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책입안 자료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책정보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대학, 기업, 정부기관, 법조기관, 연구기관 등을 포함해 회원 수는 20,344명에 달하며, 홈페이지 이용건수는 10,736,591건(페이지뷰)을 기록하였다. 웹진 및 매주 발송되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논문, 동향,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학술정보 DB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학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정책정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국내외 지식재산 분야 총 105,240건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2-2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 2) 지식재산 연구저변 확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정책포럼(3회)을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대응’, ‘한국·아프리카 IP 파트너십 강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지식재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전문가포럼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정책입안자·정책개발자·정책이용자·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재산 연구저변을 확대하였고, 지식재산 관련 연구자·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표 I-2-3 '23년 포럼·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 행 사 명  |
|--|
| 2023 지식재산 정책포럼   |
| 제1회 정책포럼 :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대응(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개최)         |
| 제2회 정책포럼 : 한국·아프리카 IP 파트너십 강화(12개의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외교관 참석) |
| 제3회 정책포럼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18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 참가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워크숍을 개최하여 논문작성법 교육, 연구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동공모전 추진을 통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식재산 인재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꾀하였다.

지식재산 관련 전문 융합학술지인 '지식재산 연구'는 지식재산 관련 법, 경제·경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물을 발간·보급하기 위한 계간지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되었다. '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등재 자격을 유지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은 지식재산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연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단행본 14,214권, 연구보고서 3,936권, 포럼세미나 자료 315권, 정기간행물 9,428권 등 총 27,893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술DB 19종, E-Journal 26종 등에 대한 구독을 통해 IP학술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의 도서관 이용협정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자료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DB와 E-Journal의 경우 자택이나 사무실 등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외접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표 I-2-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 구 분   |      | '21년 | '22년 | '23년 |
|-------|------|------|------|------|
| 접수팀 수 | 대학생  | 13팀  | 15팀  | 21팀  |
|       | 대학원생 | 12팀  | 12팀  | 9팀   |
| 합 계   |      | 25팀  | 27팀  | 30팀  |

그림 I-2-3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지식재산전문도서관 내부〉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서가〉

### 3) 지식재산 기초연구 지원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신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제도가 혁신을 위한 발명 의욕 고취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이슈와 지식재산 분야의 해외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의 국제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규범 형성과정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외협력 연구, 지식재산 분쟁·라이선스 관련 정보 등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조사·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과 혁신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을 통해 기초자료의 축적과 방

법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우주산업, AI, NFT 등)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식재산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는 국내 지식재산 및 기술혁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며, 지식재산 정책과 여러 경제부문과의 연관관계 분석, 특히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집행의 타당성 확보 및 새로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 603건의 언론보도에서 연구결과를 인용하였고, '11년 이후 기초연구의 성과가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개발, FTA·WIPO 협상 방안 수립 등에서 2,031건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연구결과의 확산 및 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강화하여 보고서 이용건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표 I-2-5 '23년 지식재산 기본연구 주요 내용**

| 구분       | 과제 개요  |
|----------|--|
| 미래전략 연구  | 미래경향을 예측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수립<br>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에 따라 새로운 정책·산업이슈 발굴 |
| 법·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정보 조사·분석<br>지식재산 법·제도의 실효성 분석                       |
| 조사·분석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조사 및 진단<br>지식재산권 관련 산업통계 조사·분석                 |
| 혁신·경제 연구 | 국민경제·산업경제 견인 효과에 대한 이론·실증연구<br>지식재산권과 기업성장 간 관계에 대한 이론·실증연구    |

####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재산 관련 현안 이슈에 대한 정

보서비스는 주요국 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동시에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며, 법·경제·경영·과학기술 등 각 학문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융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범위를 넓히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지재권 관련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및 분석결과를 여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연구정보에 대한 일반인·전문가·정

책임안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연구의 토양이 되는 중장기 기초연구를 강화하되,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경제안보, 반도체 등 사회적 이슈와 가상경제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응 연구를 신규 추진하며, 국가경쟁력 측면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만큼 지식재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3.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기초로 한 지식재산 정책 수립

|         |         |       |     |
|---------|---------|-------|-----|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정책과 | 공업사무관 | 서효원 |
|---------|---------|-------|-----|

####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식재산권 무역이란 지식재산권 제공자(공급자)와 수령자(수요자)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한 계약과 조건에 따라 금전적 보상이 수반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지식재산 관련 무역통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의한 ‘기술무역통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통계는 국제기준에 구속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식 하에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무역통계를 출하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14년 5월 MOU를 체결하고 상호업무협의를 거쳐 ’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신규 개발하여 공표하였다.

’15년 5월부터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해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지식재산권에 전문화된 무역수지 통계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수지 통계보다 구성항목이나 편제방법 등에서 한층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무엇보다도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에 대한 사

용료와 매매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통계보다 포괄적인 거래현황을 보여준다.

'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치)는 1.8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가 개발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는 산업재산권 적자규모 축소와 저작권 흑자규모 확대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산

권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규모가 7.5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triangle 26.2$ 억 달러  $\rightarrow \triangle 18.6$ 억 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4.6억 달러 증가하였다(17.4억 달러  $\rightarrow$  22.1억 달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K-콘텐츠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표 I-2-6 연도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22              | '23(잠정) |
|-------------|------------------|-----------------|-----------------|------------------|-------|------------------|---------|
| 무역수지(수출-수입) | $\triangle 16.9$ | $\triangle 6.1$ | $\triangle 5.3$ | $\triangle 20.2$ | 1.6   | $\triangle 11.1$ | 1.8     |
| 수출          | 지식재산권 수출         | 122.7           | 150.2           | 154.1            | 154.2 | 242.0            | 244.6   |
| 수입          | 지식재산권 수입         | 139.6           | 156.3           | 159.3            | 174.4 | 240.4            | 261.4   |
|             | 무역거래량(수출+수입)     | 262.3           | 306.5           | 313.4            | 328.5 | 482.4            | 500.3   |
|             | 무역수지비(수출/수입)     | 0.88            | 0.96            | 0.97             | 0.88  | 1.01             | 1.01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3년 수치는 잠정치

##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에 대한 포괄적 통계 마련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외국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해석 및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통계의 유용성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외국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발명진흥법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개정을 통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정보 접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8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진행되었다.

산업재산권 거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들의 '22년 산업재산권 무역활동(잠정)을 교역유

형별로 살펴본 결과, 수출 또는 수입활동만 하는 단방향 거래는 수출의 23.9%, 수입의 35.4%를 차지하고, 수출과 수입활동을 병행하는 양방향 거래는 수출의 76.1%, 수입의 6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국내기관은 수출(55.2억 달러)보다 수입(59.1억 달러)이 많아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외투기업은 수입(25.2 억 달러)이 수출(4.6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여 20.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내기관의 거래 중 수출의 91.9%, 수입의 92.4%를 대기업이 차지한데 비해, 외투기업의 거래 중 수출의 88.8%, 수입의 90.2%를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여 기업규모별 활동이 대비되었으며, 국내 기관은 특히 및 실용신안권 거래( $\triangle 15.4$ 억 달러)를 중심으로 적자를 보인 반면, 외투기업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거래( $\triangle 16.5$ 억 달러)를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산업재산권 수출입 상위 10대 기관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수출의 83.7%, 수입의 73.8%로 상품수출입의 상위 10대 기관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상품수출의 35.6%, 상품수입의 33.7%)에 비해 무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별 거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과의 거래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의 거래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인도와의 거래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22년 기준, 산업재산권 수출과 수입을 합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미였으며,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대양주가 그 뒤를 따랐다. 산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 분야가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1.2%, 80.8%로 상당히 높았으며, 제조업 분야의 권리유형별 거래 활동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제조업 분야 수출의 70.0%, 수입의 82.4% 차지). 서비스업 분야는 전체 수출의 8.8%, 전체 수입의 19.2%를 차지하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수출의 40.6%, 수입의 89.7%로 그 비중이 높았다.

산업재산권 거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관들의 최근 5년('18~'22)간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산업재산권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34.2%)이었으며, 베트남(14.3%), 영국(10.9%), 중국(9.0%), 일본(5.8%) 순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 누적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인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18년 △39.3억 달러 → '22년 △16.6 억 달러)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의 수입규모 감소, 기계·장비 및 운송 분야에서의 수출규모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과의 거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분야 등의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적자가 심화된 반면('18년 △5.8 억 달러 → '22년 △16.4억 달러), 일본과의 거래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분야 등의 수입규모가 감소하며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8년 △7.7억 달러 → '22년 △5.2억 달러). 베트남과의 거래는 전기전자제품, 화학 공업제품 및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폭은 다소 감소하였다 ('18년 24.0억 달러 → '22년 17.1억 달러). 중국과의 거래는 산업재산권 수출규모가 감소하고 수입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2년에 적자가 발생했는데, 향후 추이 변화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인도와의 산업재산권 거래에서 흑자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의 주요 특징과 추이를 도출하고, 이슈별 세부분석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실태 파악을 통해 나온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